



“이것이 누굴 위한 것일까?”

라는 질문이 생겼다.

계속되는 신체 변형, 다이어트가

‘자기 관리’로 요구되는 사회의 시선이

낯설게 느껴진 것이다.

자기 관리라는 언술은

관리되지 않은 자의

자기혐오를

내재한다.

뚱뚱해서 죄송한니까? - 예뻐지느라 아픈 그녀들의 이야기

글  Womenlink
한국여성민우회 출판사 후마니타스

책임자: 안국영 (책임도인국영은) (책임도인국영은)